Catholic
청년주보
제1157호
2021년 1월 10일(나해)

주님 세례 축일

입당송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또는 55,1-11〉

화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또는 1요한 5,1-9〉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 1,7-11

영성체송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말씀그림 | **김 가브리엘라**

성화로 알아보는 주님 세례 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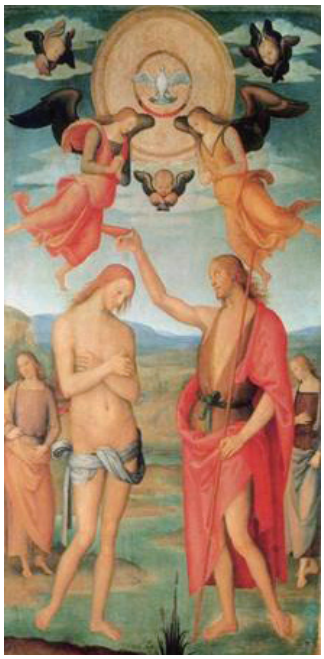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화들로 묘사되는데, 성화들은 비슷한 구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작가들의 표현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옆에 보이는 성화는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그림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 위로는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최상단의 중앙에는 흰 비둘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11)

성화는 "절대를 향한 창(窓)"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의미를 더 깊이 만나보기로 해요.

4면에서 계속됩니다.



PERUGINO, Pietro
The Baptism of Christc. 1510
Oil on wood, 261 x 146cm
Galleria Nazionale dell'Umbria, Perugia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원석 베드로 신부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의 물로써 우리의 과거와 낡은 습관과 죄악은 모두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하느님의 아들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새 이름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지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느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30여 년을 살았던 집과 부모님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례는 단지 가톨릭 신앙인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느님을 떠나 냉담합니다. 그분들에게 세례는 입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입문하고 나서 보니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성당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니 자연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당을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세례는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어느 신부님에게 교리를 받았고, 누구와 같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세례 받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주일마다 성당에 가야 한다는 것, 주일 미사 빠지면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것 그 정도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세례와 내 일상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례와 '나'라는 존재의 변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남'도 없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심'도 없고,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별다른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세례에서 오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아울러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르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원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또 하느님께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참다운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생활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 약속드린 바 있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어떤 죄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가톨릭 교리

주님의 세례(Giotto di bondone, 프레스코화 1305년)

Q. 부득이한 경우에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축복을 청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전례이며 주교님 혹은 신부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급박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대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여러분도 '비상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총으로 병세가 나아진다면 교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톨릭 교리 교회서」 1256, 1284항

세상 이야기를 가톨릭 청년답게 나눠보는 담소 공간

슬기로운 청년 생활

Ep34. 콘텐츠 홍수 시대의 딜레마

콘텐츠 홍수 시대

우리는 지금 콘텐츠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 TV만 틀어도 채널이 300개가 넘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소위 '막장'이라 불리는 자극적인 소재, 음란하고 가학적인 내용의 콘텐츠들도 만연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그러기에 자극적인 콘텐츠에 내성이 생겨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수위가 높은 내용의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성범죄나 기타 불법적인 일들을 야기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콘텐츠의 홍수 시대에 맞서 자극적인 콘텐츠의 생산을 억제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공급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 넘은 콘텐츠 경쟁

BJ,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다양하게 불리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그만큼 콘텐츠의 종류와 소재가 많아지고 있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들이 봇물 터지듯이 양산되고 있어. 시청자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야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고문을 한다든지 등 자극적인 소재의 콘텐츠들을 보면 정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야..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사람 대 사람의 소통과 관계 형성,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깊이 빠진다고 해. 사람들과의 소통이 힘들고 유대감 형성이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콘텐츠의 소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콘텐츠의 명암

자극적인 콘텐츠

인권을 위협하는 콘텐츠

성찰의 상실

돈이 전부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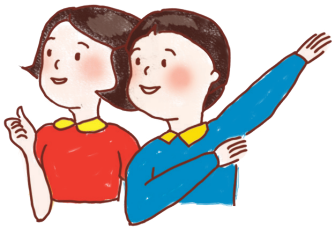
최근 키즈 유튜버가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기다리던 선물을 짠! 하고 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 연출해서 찍은 영상이었어. 또 먹방에서도 단순 먹방이 아닌 빨리 먹기 챌린지, 너무 매워서 고통스러운 음식을 참아내며 먹는 영상이 올라오곤 해. 자칫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또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만연해진 콘텐츠에 분별력을 가져야겠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지난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고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거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신의 반성이나 성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상생하려고 하는 배려 차원의 마음이 부족한 거 같아. 이런 이유로 지난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에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대면이 줄어들고 있어서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 스스로 이런 콘텐츠를 지양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야.

사랑하는 청년들!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서 본 것을 사실로 여깁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폭력을 미화하고 반사회적 태도를 용인하거나 인간의 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폄하한다면, 대중 매체의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 기관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중 매체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제작물이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 폭력과 증오, 외설적인 매체를 소비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YOUCAT 460항을 읽어 보세요.)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 사는 얘기를 들어 보아요.

- 콘텐츠를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요?
-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쉼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루 혹은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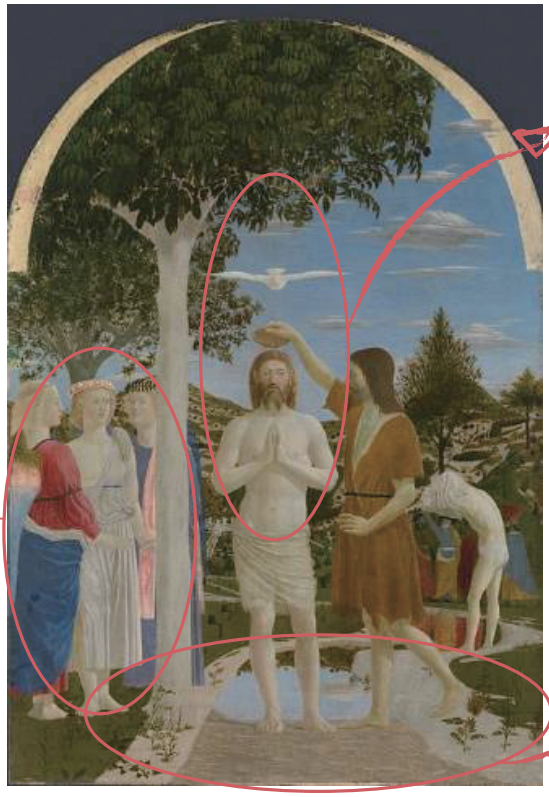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 (2013.5.18 세계가톨릭협회 강론 중)

성화로 알아보는 주님 세례 축일

'그리스도의 세례'(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그리스의 신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윗부분은 비둘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 아랫부분은 예수님의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으로 원의 반을 가로지릅니다. 원은 천상의 세계를 사각형은 유한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인물이나 천사는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
경배드림을 뜻함.
세 천사는 세 가지 덕인
믿음, 희망, 사랑을 상징.



비둘기, 그릇에서 떨어지는 물,
예수님의 합장한 손을
일직선에 배치.
성부(황금빛)-성령의 비둘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의 중심
세로축으로 삼위일체를 이룸.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식물들을 묘사.
세례 성사가
'영적인 치료'의 성사라고
생각한 것.

Piero della Francesca/ ***The Baptism of Christ***
c. 1448 - 50/ Tempera on panel, 167 × 116cm
National Gallery, London

예수님의 공생활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성화와 함께 주님 세례의 의미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나의 세례성사의 은총 또한 묵상해보길 권해봅니다.

[참고: 굿뉴스 - 성화로 본 주님 세례 축일, 그림에 숨겨진 하느님(윤인복 지음)]
[**편집부** 조이람 실비아, 현성혁 베드로]

2021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한 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쉬움으로 흘려 보내기엔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아깝지 않아?
오늘부터라도 파이팅!

나이 한 살 먹는 건 변함없어.

새해에만 새로워지려 하지 말고, 매일을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보자.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